

지역 소식통

부안군, 악취 제로화 추진

부안군은 2021년 악취 제로화를 중점 추진해 정정부안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부속된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가족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속도기준 및 퇴비·액비살포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할 예정이다.

또 가족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시설 47개소에 자동분사시설 설치를 완료해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및 축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으로 악취 발생 제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군은 지난해 사업장 및 축산시설 233개소를 점검해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7개소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가족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1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환경배출사업장 점검

부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예방 차원의 집중감시와 특별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과 연휴기간 중으로 2단계로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인 연휴기간 전에는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협조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체 및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순찰을 강화한다.

2단계인 연휴기간 중에는 농공단지 및 주변하천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한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 물질 불법행위 및 환경오염 사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군 환경과 상황실(☎ 063-580-4429 또는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시정 현안 사업 설명회

언론인 간담회... 백신 접종 계획, 연수·향기 경제 기반 구축 등

정읍시가 4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시정 현안 사업' 설명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곽승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올해 추진되는 시정 주요 현안과 각종 사업 추진상황,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좌석 띄어 앉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곽 부시장은 최근 범국민적 관심 사항인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집중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백신은 감염병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또 시는 안전하고 빈틈없는 점포를 위해서 이달 1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7팀 155명의 백신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 백신접종 지원과 이상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고 질병관리청과의 핫라인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사와 아산병원을 비롯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접종지원과 긴급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접종대상은 18세 이상 9만3천648명이며, 백신 접종은 접종센터와 위탁병원,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자 등을 위한 방문 접종 등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연수 도시와 향기 경제 기반 구축과 일자리 만들기 등 핵심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연수 도시 기반 구축과 관련, 곽 부시장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과 전기안전공사 교육원 JB금융그룹통합연수원 등 많은 연수 시설이 건립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는 이미 유치한 시설 건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탄탄한 연수 도시 기반을 갖춰 나가는 한편 다른 공기업의 연수원, 수도권 지자체 휴양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부시장의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철보산 버섯재배사 ▲상두산 석산 개발 ▲철보산 임도 개설 구랑마을 사방댐, 돌봄사업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 시민사회의 관심 이슈 사업과 쟁점 사항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졌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국·소장이 답변에 나섰다.

리벤더 농원이 민간 소유라는 점 때문에 여러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정읍시는 지난 4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시정 현안 사업' 설명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주최했다.

질문에 곽 부시장은 일부에서 특혜로 주장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 확정이나 사방댐, 돌봄사업은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일대 농지 영농편의를 위해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답변에 따르면 사방댐 조성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사방댐의 효과가 입증(저비용 고효율사업 대표 사례)되면서 주력적인 추진에 나선 정부 방침에 맞춰 진행됐다. 철보산(리벤더 농원 인근) 2개소 외에도 정읍에는 모두 72개소의 사방댐이 조성돼 있다.

또 돌봄사업은 고지대 과수원 및 주변 농토(10ha)에 농업용수 공급과 지속적인 가뭄 대비 등 원활한 영농급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리벤더 인근 돌봄도 이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특히 고지대 구랑마을 주민들의 돌봄 설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관련해서 시는 지난해에도 13개소의 돌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철보산 버섯재배사 관련,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석산 개발 우려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이어졌다.

시는 토석 채취는 ▲고속국도와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2천m 이내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1천m 이내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500미터 이내 산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제한지역)에 따라 석산 개발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석산 개발을 우려하는 버섯재배사의 경우 국지도 49호선 인접 20m 이내에 자리하고 있어 현재 사업부지 외에 철보산 일대 석산 허가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귀농·귀촌 편선형 가족 실습장 조

성과 관련해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이완욱 소장은 관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예정 가격을 작성해야 하고, 조달청 시설통사 원가 계산 제비를 적용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사비용은 개인 공사에 비해 정부 표준품과 조달단가 적용, 원가 계산 제비율이 적용되어 민간 공사보다는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소외계층 위문품 지원

정읍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행복할 설 명절을 보내고자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각종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43개소를 비롯해 경로당 720개소와 저소득층·저소득 한부모가족 1,266세대, 위기가구 237세대 등이다.

시는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소외되는 일 없이 중위소득 80% 이내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골고루 지원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유진섭 시장은 4일 정읍시립 요양원과 자여원을 방문해 백미와 물티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산위에 고창 명품 소나무

우리 민족의 모습을 형상화, 애국애족 정신 기려

전북 고창에서 직접 공수된 소나무가 서울 남산 중심에 자리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일제에 훼손(조선총독부 관사)되고, 서울 퍼런 군사독재 시절 고문(중앙정보부 6국)이 행해지던 곳에 정의로운 고창군의 기상이 심어졌다.

4일 고창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남산 예정지락 재생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예정숲'에 고창산 소나무가 자리 잡았다.

이 소나무는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로 이름 붙여졌다. 독립운동가가 나라를 찾으려는 간절함으로 불렀던 애국가의 한 구절로 나무 이름을 명명해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고 예정숲을 기획한 서해성 총감독은 설명했다.

'남산 위의 저 고창 소나무'는 지난 세월 고난을 이긴 우리 민족의 모습을 형상화한 곡선이 있는 소나무로, 남산 예정지락의 대표 소나무다. 3개의 후보목에 대해 서 감독이 직접 고창에 내려와 현장 확인을 거쳐 명품 소나무를 공수했다.

고창군은 소나무의 도시다. 구시포·동호 해안가에 병풍을 둘러친 울창한 송림은 방풍림 등의 기능을 했고, 고창읍성·무장읍성에선 수백년된 소나무들이 뿔뿔하게 채워져 군민들의 편



전북 고창에서 직접 공수된 서울시 남산 예정지락의 '남산위의 저소나무'

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 가로수 역시 소나무다.

소나무는 그 나라, 그 지역 사람을 닮는다. 모진 바람과 척박한 환경에서 휘어지고, 상처 나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고, 강건하고 꿋꿋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96인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해낸 고창군민과 더불어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명품 소나무가 대한민국 굴곡진 역사의 현장에 심어져 위로와 치유, 통합의 의미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본격

정읍시가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억 3600만원을 투입해 3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만원을 집수리 비용으로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설명회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지난 3일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로, 정읍시의원 17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읍시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조상중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한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통해 성숙한 선진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